

1991

7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제 2 차 김치 (kimchi) 세미나 중국어권 참석자들의 새벽기도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사사기 서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부터 왕정시대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와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 그러한 곤경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사 압제자를 무찌르고 평화를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준다. 사사는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였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주제중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스라엘이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얼마나 충성하는가의 문제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사사요 구원자이시다.

7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2.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의 사명과 헌신
3. 진행중인 목회자 세미나
4. 사랑의 집, 선교원 건립
5. 교회 부흥
6. 교회학교의 질적 양적 성장
7. 70인 전도대의 전도활동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삿 11:1)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일은 신비하여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입다의 경우도 그러합
니다. 그는 담력과 용맹이 있는 큰 용사이었으나 기생의
아들이었으므로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였습니다. 그는 부친의 유산을 같이 나누지 못할
자라 해서 이복형제들에게 아무 것도 없이 내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외지로 피신하여 처지가 비슷한
잡류들과 더불어 지내었습니다. 이러한 입다가 재기하며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
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쓰시고자 하니 놀라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위급한
일을 당한 동족 형제와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이
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어쫓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당했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입다는
이렇게 큰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요 구박
받고 내어쫓김까지 당했던 그였으나 이제는 명예스럽게
복귀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동족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 아무리 내게 불리한 처지와 조건이 많아도 하나님께
서 쓰시고자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
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고전1:27). 우리 자신의
불우한 여건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히 써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신앙과 인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 불리한 여건과 처지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종윤 위임 목사님과
그 강단에 더욱 힘과 강건함을 더하소서.

2 (화)참 종교의 중요성

산송28 성경, 삿11:12-28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11:24)

입다는 침략의 억지 구실을 내세우는 암몬자손 앞에서 당당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논리를 펼치면서 암몬자손의 억지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을 차지한 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까닭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것과,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만나로 양육받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습니다. 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대적을 그 손에 붙이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신앙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신을 섬기면 헛된 종교와 신앙의 원리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그모스와 몰렉 신을 섬기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자식을 불에 태우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인도에서는 자식을 간지스강에 던져 제물 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짓 신과 헛된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그릇하게 하는지 그 해독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참신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열렬히 진지하게 믿어도 헛될 뿐입니다. 참신을 섬기는 참된 종교와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기도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날마다 힘있게 불드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11:30)

쳐들어온 암몬족속과의 결전을 앞에 두고 입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우리는 다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열세인 이스라엘이 이번 싸움에 이기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셔서 큰 승리를 거둘 경우 그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시로 서원 제물을 드릴 것을 고백하였으니 그의 생각과 의도는 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다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서원은 깊이 헤아리지 않고 성급히 해서는 안됩니다. 입다는 그의 서원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과 인격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남독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순종이 그에게 있는가 하는 시험에 입다와 순종하는 그의 딸은 낙제하지 않고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인신제물로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사용함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레18:21, 20:2-5, 신18:10).

※※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품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입으로 서원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도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12:1)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전에 기드온의 승리 후에도 트집을 잡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입다가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시 물려와 불평을 해댔 뿐 아니라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들의 도움없이 암몬족속을 무찔렀다고 불같이 노한 것입니다. 말릴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시기하는 사람에게서는 공격을 받습니다. 시기하는 자는 무슨 트집거리라도 물고 늘어 집니다. 그런 자는 어렵고 힘든 일에 동참하기는 꺼려하지만 일단 그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되어진 일을 과소평가하거나 헐뜯습니다. 아니면 왜 나를 무시하고 빼뜨렸느냐고 공격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는 결국 파멸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입다가 거느린 길르앗 사람들과의 한 판 승부에서 그들은 참패하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속이고 도망치려다가 요단 나룻터에서 수만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시기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에 주목하고 시기라는 울무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시기는 남을 괴롭힐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있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과 이웃을 파멸로 이끄는 시기가 틈타고 있지 아니한지 늘 경성해야 합니다.

기도 자신과 남을 불행으로 이끄는 시기의 울무에 걸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당회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임하게 하소서.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삿12 : 8)

입다 이후의 입산, 엘론, 압돈 세 사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을 많이 누린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나 입다가 사사로 있던 시절과 같은 큰 전쟁도 없이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환난 고통도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입산과 압돈 사사는 많은 자녀손까지 두어 큰 가족을 거느렸습니다. 아들 딸 60명이나 둔 입산이나 아들 손자 합해 70명이나 둔 압돈은 자손의 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사사로서의 명예와 이름이 있었으며, 아들 손자들에게 나귀 70필을 태운 것으로 보아 재산과 재물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부러워할 것이 없는 평안과 풍족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 기뻐하실만한 그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들 사사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값진 희생과 노력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무사태평한 삶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보람있는 결실과 값진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총과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며, 그저 평안히 안락하게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상하고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 생애를 값지게 투자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과 목표에 동참하여 그의 크신 뜻을 이루면서 놀라우신 그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백성의 삶을 힘차게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기도 무사 안일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표를 향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와 국가를 위한 권사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늘 들어 응답하소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13: 8)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은 부모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말은 어제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자녀교육은 부모의 큰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키우며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보다 실제적인 중대질문입니다. 마노아 부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합당히 여기시는 사람, 즉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키워야 합니다. 마노아 부부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할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교육원리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야 할 양육원리를 마노아 부부는 확인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키우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양육원리를 요긴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 나실인의 규례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사는 경성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말라 함은 하나님께만 절대 복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밖에도 시체를 가까이 말라는 규례도 있었는데 이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죄악을 멀리하는 성별의 생활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은 주께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모든 크리스찬 곧 성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기도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나실인 곧 주께 헌신된 인물로 키우게 하소서. 매주 수요일의 다락방장 교육을 통해 다락방 부흥이 왕성케 하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삿 16 : 10)

구약시대의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 50일만에 지키는 절기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여름 곡식(밀, 보리)을 거두어 들이고 햇곡식을 먹게 된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정신을 다음과 같이 몇지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은혜를 잊지말고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물입니다. 예물은 내게 복주시대로 힘껏 지원하는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교제와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절기는 온가족과 동거인, 손님, 이웃의 곤고한 자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교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절기는 두렵고도 엄숙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감사와 즐거움의 절기인 것입니다.

* *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지키며 회회낙낙하는데 이웃 형제들은 겉에서 괴로움가운데 부르짖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에게 잘못된 것은 용서를 빌고 화목하며 곤고한 자는 구제하고 보살피면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맥추절을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 맞이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13 : 22)

마노아는 자기 앞에 나타났던 자가 여호와와 사자인 것을 깨닫고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나 그의 사자를 보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의 말을 듣고 자식을 보게 되리라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기 전에 오히려 마노아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신앙은 놀라운 것이어서 남편이 가진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로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받으신 번제와 소제와 그가 보이신 일과 이르신 말씀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불확실과 두려움의 흑암 속에서 확신과 기쁨의 빛을 얻게 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며,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 열납된다는 확신과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있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14:1)

본문은 장성한 삼손에 대한 기록으로서 그의 모습은 탄생시의 거룩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정열을 가진 청년으로 비쳐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경건성은 약화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삼손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려는 섭리이기도 했습니다(4절). 그는 부모의 신앙과 헌신을 따라 나실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법은 문제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에 민족적인 갈등이 생겨서 삼손의 개인적인 욕심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 치명적인 손해를 주는 사사로 20년을 지내게 되지만 그는 승리를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약점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이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산다면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10 (수)삼손의 수수께끼

찬송397 성경, 삿14 : 10-20

「여호와와 신이 삼손에게 임하시매」(14 : 19)

수수께끼에 진 결과로 삼손은 약속대로 베옷과 겹옷을 각각 30벌씩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약속한 옷을 구해서 약속을 지킨 후에 아내에게 속았다는 것으로 크게 분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 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순전히 아내의 간청에 그 답을 애기한 자신의 실책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의 아내가 행한 일 즉,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에 못이겨서 남편을 속여 답을 얻어 낸 일은 도리어 자신과 아버지를 죽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일에 급급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어리석고 소견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사람의 비겁한 행위는 삼손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삼손의 분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분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록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는 일이 없으시며 악인과 불신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늘 감사하며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삼손처럼 성령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한편, 내게 있는 인간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 남다른 조심을 해야 합니다.

기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나의 약점을 깨달아 지혜롭게 극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지난 달에 개강된 세계 선교 연구원을 통해 유능한 선교사들이 많이 준비되게 하소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15 : 3)

수수께기에 진 것으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여 돌아갔던 삼손은 후에 다시 그 아내를 보기 위해 덤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 블레셋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 구실을 얻게 된 삼손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결과였습니다. 삼손은 용맹스럽고 힘이 세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략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우를 300마리나 붙들어서 꼬리를 서로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 매어서 블레셋의 곡식밭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와 권능을 힘입어' 싸웠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전쟁도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데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략을 다분히 개인적인 데에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에 개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곤란하지만, 사람에게서 개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키기는 힘든 일입니다. 삼손의 복수심은 개인적으로는 명분이 서는 일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공감하고 따를 만한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늘 혼자 일하는 외로운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느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공적인 명분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12 (금) 동족에게 외면당한 삼손

찬송449 성경, 삿15 : 9-13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15 : 12)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하자 그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유다로 공격해 들어와서 삼손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그를 잡아 넘겨 주려는 유다인들에게 삼손은 자신을 유다인들이 처벌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기만 할 것을 다짐받고 순순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만한 영적인 감각도 없었고 자기들의 괴로움을 더 이상 주 앞에 나아와 부르짖을 줄도 몰랐고 또 회개하려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서도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면서 도리어 삼손을 책망하고 결박하여 적의 수중에 내어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며 심지어 하나님의 간섭을 몹시 불편해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 세상이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의 내용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보다 경건하게 살고 자신의 사사로운 일보다는 민족을 위해 공적으로 헌신되어 있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손을 이해하고 돕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롯의 때와 같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고가 어이없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세상일찌라도 세태를 타할 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경건한 삶의 자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협력을 얻는 설득력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이 더 영감있는 찬양으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호와와 그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15 : 14)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진 삼손은 여호와와 그의 권능이 임재함을 경험했고 결박을 끊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일천명의 블레셋인들을 쳐죽였습니다. 삼손이 포박되어 적의 손에 넘겨졌을 때 그 당시는 절망이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삼손은 심한 갈증을 겪게 됩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살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역사를 이룰뿐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까지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큰 일을 마치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삼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샘이 터지도록 응답해 주셨고, 그곳의 이름이 '엔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었습니다.

* *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 번 승리로 마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자의 계속적인 승리를 위해 인간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성의 큰 승리뒤에 아이성의 참패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값진 교훈을 오늘 우리의 삶에 되새기면서 겸손한 자세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개개인의 '엔학고레'를 소중히 간직합시다.

기도 겸손한 자세로 계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70인 전도대원들이 권능으로 떠뵈고 나가서 사역하게 하소서.

14 (주일)삼손의 잘못된 선택

찬송434 성경, 사16 : 1-17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16 : 16)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에 대한 정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육체적인 정욕과 사랑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의 생을 비극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삼손을 일찌기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에 실패한 경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에서 기생과 함께 지냈고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날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는 등 특별한 방법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유독 여자 문제에서는 제대로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같이한 사람이었지만 계속 여자로 인해 사단의 유혹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성간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나눈 사랑은 종말을 향한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들릴라의 집요한 간청에 삼손은 그만 그의 힘의 근원을 실토하고 맙니다. 들릴라가 세 번 썩이나 속고나서 삼손에게 보낼 때 삼손이 제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 여자의 본심을 알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 우리의 삶은 연속적인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주저하는 선택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취약한 허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번히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이 나를 자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16 : 20)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달콤한 향락에 취해 잠들었던 삼손은 머리가 깎이우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두 눈을 뽑힌 채로 옥중에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잘리우자마자 그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의 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머리털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나실인'이라는 증표에 불과했습니다. 머리털이 잘렸다는 것은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초자연적인 힘 역시 잃어버린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삼손의 말년은 죄의 유혹에 패배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 줍니다. 그는 빛을 잃은 자요 사슬에 묶여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능력도 영광도 소망도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이런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무감각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사명의 실패를 가져오고 개인적인 비극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 * 영적인 무감각은 무책임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대해 무감각하면 사람에 대한 책임에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은 사명자인 모든 성도들에게 첫째로 요구되는 자질은 영적인 감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영적인 작업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16 : 30)

본문은 삼손의 장렬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먼 채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치욕을 당한 삼손은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던 그 신전의 기둥을 두 손으로 무너뜨림으로서 그들과 함께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최후는 시작만큼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예고로 시작된 아름다운 생이었지만 시작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역사하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리만큼 큰 힘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받은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와 부모의 기대 그리고 시대적인 요청에 보답하지 못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자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재판관이며 국방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민을 섬기고 보호하며 국민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공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봉사해야 할 자리보다 자기의 이익과 재미와 향락만을 쫓아 다녔습니다.

※ ※ 하나님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삼손처럼 큰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에 끌리고 헛된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초라한 결산을 맺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받은 은사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과 일의 방법으로 알찬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산할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시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17 : 2)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일정한 법칙이 있는가?’란 질문은 계속해서 인간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쉽게 할 수 없으나, 반대로 무엇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3, 4절).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우상 숭배 대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5절). 물론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인양 여겼지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든 행위였습니다(롬1:23). 특히 미가의 가정이 형식적으로 모양을 다 갖추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 현대에도 종교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종교를 빙자하여 자신의 부와 명예와 종교심을 만족시키려는 잘못된 행위가 많습니다.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때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의 소견에 옳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7 : 10)

기독교가 진정 하나님 중심이 되어 빛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사회는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건전한 사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고상한 소명자로 성별된 한 '레위인'의 부패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미가는 레위 소년을 만나 그를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와 레위 소년 간에 주고 받은 흥정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며(민18:1),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책임지는 직책입니다. 그 뿐 아니라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예식은 반드시 선임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치루어져야 합니다(출29:29). 그런데 미가 개인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고, 그 또한 미가 자신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여 말한 대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멸망을 초래케 하는 망령된 행위들이었습니다(호4:6). 미가는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향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제사장을 세우는 등 외형적 종교 의식만 갖추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을 줄로 착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샅군 목자인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혹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일꾼들의 모습이 부패한 레위인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18 : 1)

일상생활 중에서 범하기 쉬운 한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마다하고 쉬운 일을 찾는 경향이 그것입니다. 단 지파는 일찌기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수19장). 그러나 여러 악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주지를 찾던 단 지파가 북쪽으로 용맹한 다섯 정탐꾼을 파견하여 라기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레위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서 여행이 형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서는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라기스 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만족스런 보고를 올립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 배당받은 땅이 정복하기에 조금 힘들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기에 전진하여야 했는데, 그들은 대적들에게 기업을 내주고 쫓겨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인본주의적 사고였으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적 행위였습니다.

＊ ＊ 우리는 영적 전쟁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장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혹시고 통과 환란이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고통과 암흑의 사흘은 기쁨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20 (토) 불의한 동기와 그 결과

찬송487 성경, 삿18 : 11-20

「어느 것이 낫겠느냐」(18 : 19下)

죄는 가만히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부정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새로운 범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백성들에게 라기스 땅으로의 이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미가의 우상을 무력으로 탈취하였으며, 또한 미가의 가짜 제사장을 금품과 명예욕으로 회유하여,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소년은 본래 무자격자로서 사명감 없이 생계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 지파 사람들이 제시한 보다 좋은 조건에 미혹되어 본래 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주인의 우상과 종교 기물을 훔쳐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미가의 가정을 타락시켰던 이 제사장은 이제 단 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단 지파는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레위 소년은 소명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 타산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버리는 종교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살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간 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경고합니다(유1:11, 12).

**** 미성숙한 신앙은 연약하고 무지하며,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씀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귀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작은 죄라도 기꺼이 버리는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18 : 30)

신앙인들은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우선 순위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보다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자신의 축복에 목적이 있다면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신상들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 때에 미가는 그것들을 찾으러 갔지만, 힘의 부족을 깨닫고 그냥 돌아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단 지파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삶의 평안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후로 단 지파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단지파의 이름은 역대상1-8장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에서 누락되었으며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 중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됩니다(행12:23).**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의에 대항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받은바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좋게 보여도 그 결과는 나쁠 수 있습니다(잠14:12).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여야 합니다.

「남편을 떠나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19 : 2)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한 가정의 삶은 당대의 전체 사회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중요시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사실과 그 첩이 행음하였다 했는데 이는 그 당대의 성 도덕이 얼마나 문란하였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첩이 남편을 배반하고 친정으로 간 것은 배신 행위를 뜻하는데 이 정도로 당시 사회는 불신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 도덕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5일째 저녁에는 그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육신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가정윤리의 기본 지침은 일부 일처제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딤후3:12). 레위인은 외식과 형식을 더욱 소중히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곤 하였습니다.

**** 가정이란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하여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이루고 가장 신성한 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지켜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윤리가 우리 가정에는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19 : 21)

여행을 하던 중 날이 저물었는데도 갈 곳이 없어 방황해 본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의 조그만 친절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브아는 율법이 명한 나그네 대접에 소홀히하는 불경건한 성읍이었습니다(신10:17-19).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그를 영접하였는데 이 노인도 기브아에서 객지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인도 나그네이었기에 나그네 된 레위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친절히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노인은 자신이 객지의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남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본향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이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한 자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기적 존재들이었지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나누는 삶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 자기 마을에서 낯선 사람을 보고, “저 자에게 벽돌을 던지라”고 외친 요오크셔 사람들이나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는 신사의 변명에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눅10장). 참된 친절은 댓가를 기대치 않으나, 예측치 못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19 : 22)

“인간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브아 성읍의 비류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극악한 성적 범죄(창19:5)를 지을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했음(22절)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양심이 화인 맞은”(딤후4:2)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약1:15). 기브아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인해 쾌락을 좇았을 뿐, 자신들로 인해 처절하게 고통받는 여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마침내 그 비류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모두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20:46). 또한 여기에서 레위인의 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와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12등분하여 전 이스라엘에 강력히 고발하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와 허물을 잊고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집착하던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였기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개방의 시대가 되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심판의 때가 가까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양심은 무디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삽시다.**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20 : 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집단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체제로 시작해서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모여야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아름다운 모임은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되 악을 용납하지 않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악을 용납하는 모임에 우리는 가서도 안되며 용납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제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폭력을 지닌 모임도 우리에게 는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행동에 분개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한 이들의 모임은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 ＊ 우리들은 수 많은 모임의 연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형제의 동거함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시133: 1). 이 아름다운 모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멀리해야 하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폭력을 소유한 모임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마5:9)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모임은 진리 안에서 화평케 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파라과이의 김재창 선교사님에게 주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20 : 13)

눈덩이는 굴리면 굴릴수록 그 덩어리가 커지게 됩니다. 죄의 속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베냐민 사람들의 불어나는 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의 비류들이 이스라엘에 악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은 악을 행한 무리들만 처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악을 행한 그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것 보다는 인정과 사정에 이끌리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악은 점차로 심화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덮어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우리는 농구 경기를 가끔 봅니다. 그 경기에서는 선수가 반칙을 범했을 경우에 자진해서 손을 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솔직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들은 이런 솔직성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솔직하지 못하였기에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돌렸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죄를 숨기려거나 정당화하면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더욱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 솔직하여 죄가 불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팔라우의 김익경 선교사님의 사역에 활발한 열매가 늘 있게 하옵소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20 : 26)

정답을 알고 치르는 시험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기쁨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 많은 기도 중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된 것이라면 그 기도하는 기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레임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모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중천하여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패하면서 수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결과로 이스라엘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 * 기도는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모든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장의 원리이고 하나는 연결의 원리입니다.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여 저축을 해 두어야 하며 위급할 때 기도하며 저금한 것을 하나씩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 두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려움을 쉽게 이겨 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한 믿음은 낙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눅18: 1). 어렵고, 응답이 없지만 낙망하지 말고 더욱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응답을 받는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낙망하기 보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본의 구리하라 가즈요시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옵소서.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줄을 알지 못하였더라」(20 : 34)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에 악한 자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진실한 자가 승리하도록 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하여금 딜렘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부를 누리는 데 진실한 성도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죄를 범한 베냐민 사람들이 오히려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제시하지 않은 분이심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용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600명 가량만 도망하여 살게 됩니다. 교만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실력만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기들의 실력만 의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화려한 경험에 의지하며 악을 제거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패망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성공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으나 신광야에서 경험에 의지하여 반석을 두 번이나 두드린 결과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민20:1-9, 민27:14). 교만은 악을 낳고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악을 동반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주님 앞에 낮아지며 사소한 악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김주경 선교사님을 통해 유대 땅에 구원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게 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21: 6)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후회하는 인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회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경우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결과는 후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하는 성미는 거의 다 후회를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범죄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욕하는 성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절제하지 못할 때 항상 후회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정의감과 열정을 자기의 형제를 전멸시키는 위기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정리될 즈음에서 뒤돌아 보니 자기들의 처사가 너무 과격했다는 것과 피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동족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 이스라엘은 이제 후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할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화 되어서 연속 후회되는 일을 행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심정으로 심사숙고할 때에 우리의 후회는 극소화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후회한 사건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후회하고 회개한 후에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미련이라고 했습니다(잠2:11). 오늘도 욕하는 성질에서 나오는 과격으로 생기는 후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주여 아픔을 후회하기 보다 먼저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수리남의 안석렬 선교사님에게 비전과 능력과 건강을 더하소서.

30 (화) 올무가 된 제도

찬송373 성경, 삿21 : 16-24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21 : 17)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라 함은 정해진 것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고, 은혜라 함은 정해진 일을 준수해 나가는 도중에 생기는 허물과 과오를 용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일정한 규범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정의만 요구하신다면 그 가운데서 바로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조화될 때만이 우리는 건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제도를 무시하여도 안되고 제도 준수를 고집하여 용서를 잊어서도 안됩니다. 본문은 과거했던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제거하도록 세웠던 규범이 너무 엄해서 베냐민 지파가 몰락 위기에 처하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서원을 지키기 위한 강한 주장은 베냐민 지파가 살 수 있도록 편법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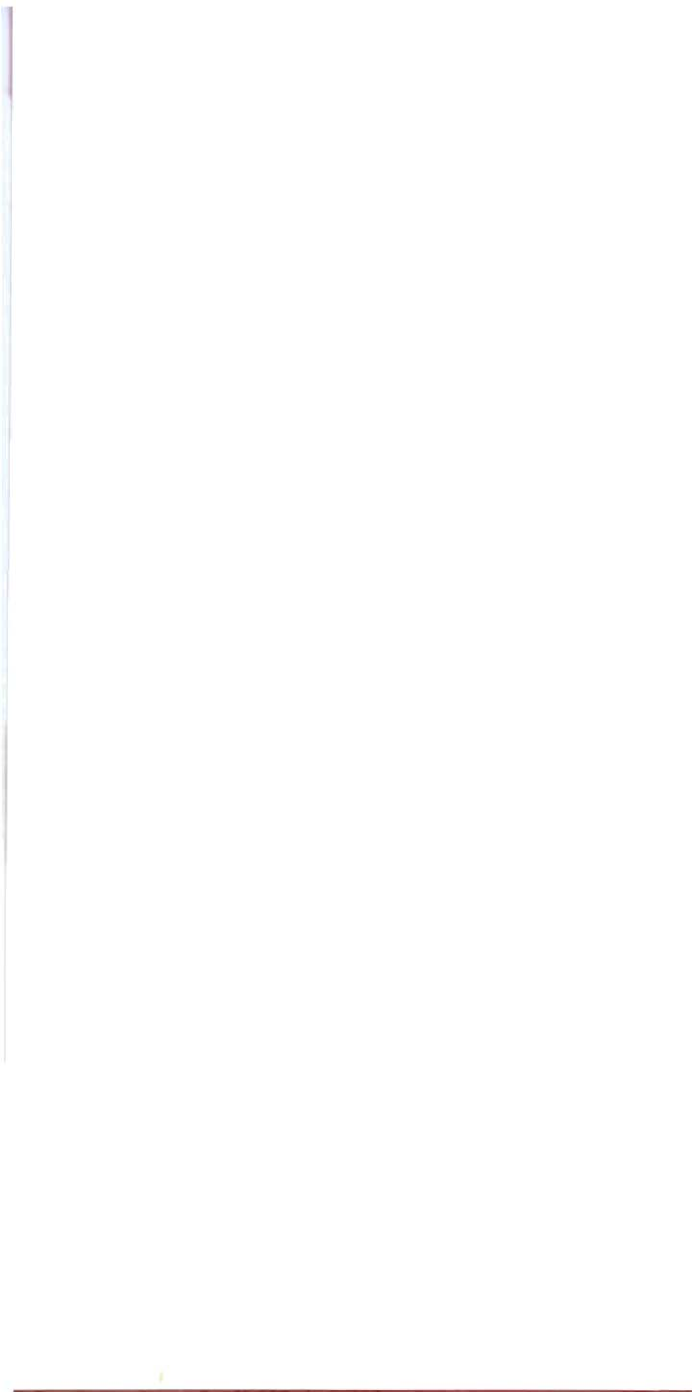
* *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임다의 서원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서원, 잘못된 제도가 세워졌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큰 손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제도를 세울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일단 세워진 것은 철저히 지키되 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면 안됩니다. 사울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이었지만 이미 세워진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은 모두 요나단을 용납(용서)했던 것을 봅니다(삼상 14:24-46). 제도에 얽매어 형제를 비평함 보다 용납하는 하루가 됩니다.

기도 우리 삶 속에 주의 법을 어긴 자를 정죄하기 보다 사람으로 용납함도 있게 하옵소서. 서사모아의 박행렬, 장부용 선교사님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삿21 : 25)

이상적인 정치는 철인이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가 없이 실시되는 정치는 속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인이 주도한다고 해도 뒤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상적인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하나되어 어우러질 때 이상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정치가 없는 시대와도 같습니다. 정치가의 자질도 문제 이거니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다가도 수일 내에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의 특징은 무질서가 난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승리하고 진실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없는 나라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 시대의 마지막에서 왕정 정치로 가는 과도기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완악한 인간의 본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온 하나님을 대단히 서운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뜻대로 살기만을 고집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진정한 평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